

# 『2005년 환경교육지원사업 최종 보고서』

주최: 환경정의 다음을지키는사람들

후원: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이 보고서를 2005년 환경교육사업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2005년 환경교육지원사업 최종보고서

## 1. 사업명 - 『생태적인 지역 공동체 만들기』

## 2. 사업 목적

우리는 지금 총체적인 환경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무더위와 피해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발령하고 있는 오존주의보는 심각한 대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에게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주는 성장과 개발의 부산물들이 가져오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환경의 위기로 인한 피해가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심각한 형태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질환, 소아암, 당뇨 등의 현대병들이 아이들에게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생활의 변화와 안전하지 못한 먹을거리의 생산, 가공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건강과 환경, 생태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알려지고 부분적으로 개선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보와 정책의 부재로 인해 각 지역 사회로까지 인식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다지사') 구리, 남양주 지부에서는 2003년 3월부터 중앙집중화된 환경과 생태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보를 각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지역 소모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도농 복합형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리, 남양주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생태적 자원과 문화적 자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마인드와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환경자산의 소중함과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지사 구리, 남양주 지부에서는 생태적인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자연환경 보존과 도농교류 프로그램으로 주부 및 아이들의 농촌이해와 자연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주부가 교육 및 체험학습을 통해 지역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의 한 주체로 서며, 나아가서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 등에 환경강사로 나섬으로써 체험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3. 사업개요

<b>사업명</b>	생태적인 지역 공동체 만들기
<b>총사업비</b>	700만원
<b>사업기간</b>	2005년 3월 - 12월
<b>사업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집중화 된 생태교육 체험기회를 지역에 확산시키고자 함.</li> <li>- 주부 및 아이들에게 자원순환형 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함.</li> <li>- 어릴 적부터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함.</li> <li>- 생태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마련</li> <li>- 도농교류프로그램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모델제시</li> </ul>
<b>사업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공동체 형성</li> <li>-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모델 제시를 위한 자료집 발간(보고서 형식)</li> <li>-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성 리더쉽 형성</li> <li>- 분산되어 있는 지역소모임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li> <li>- 이론 뿐 아니라 실습을 통한 체험학습 병행</li> </ul>
<b>주요사업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지킴이 환경학교</li> <li>- 지역생태답사</li> <li>-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요리교실</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집중화 되어 있는 환경교육과 체험교육의 혜택을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생활 근거지에 기초한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을 알려나간다.</li> <li>- 체계화된 교육과 지속적인 사후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참여자를 결집시켜 생태적인 지역공동체 만들기의 기반을 다져나간다.</li> <li>- 지역여성이 주축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여성리더쉽 발굴에 일조 할 것으로 예상된다.</li> <li>- 주 5일 수업에 대비해 체험교육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li> <li>-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고, 언론과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다른 지역에 까지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li> </ul>

## 4. 사업추진 내용

### I. 사전 준비

일시	최초 계획	실행 내용	비고
3월 10일~	환경학교 준비회의	환경학교 세부 프로그램, 강좌내용과 강사, 날짜 계획	
3월 14일~	환경학교 장소섭외, 강사섭외	남양주 시립도서관 섭외, 결정 강사섭외	
3월 21일~	환경학교 홍보 진행	인터넷, 전단지, 각 소모임 별 홍보 진행,	
3월 28일~	환경학교 자료집, 플랜카드 제작	자료집 70부, 플랜카드 제작	
4월 7일	환경학교 준비회의 총 점검	역할분담	

### II. 다음지킴이 환경학교(1차)

4월 14일	1강: 쓰레기 문제의 생태적 해결 방법 - 이대수(경기 시민사회포럼 사무처장)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소각장의 위험성에 대한 강의 진행	
4월 21일	2강: 우리 아이에게 안전한 먹을 거리를 - 김순영(환경엄마 김순영의 아이 밥상 지키기 저자)	환경질병인 아토피성 피부염과 먹거리의 관련성, 엄마와 지역사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강의	
4월 28일	3강: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환경 호르몬을 찾아라 - 김미진(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운영위원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조리용구, 합성세제, 화장품, 새집증후군, 전자파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의 식품첨가물과 외국의 규제 사례등	
5월 3일	4강: 현장답사-농촌 일손 돕기	팔당 유기농산물 생산지 방문, 3개조로 나누어 일손 돕기 진행 1조-고추 지지대 세우기, 말뚝 박기 2조-고구마 심기 3조-오이심기, 잡초 뽑기 평가회의 진행	
5월 12일	5강: 삶을 키우는 교육, 자연주의 육아법 - 김정희(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삶의 교육이 지식교육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한계지적 자연체험 교육, 또래교육, 가치교육과 감수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	
5월 19일	6강: 지역 농산물로 학교 밥상을 -학교급식 이야기	학교 급식도 교육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위생문제가 해결되지	

	- 이빈파 (전국 급식 네트워크 사무처장)	않고 수입농산물 일색인 학교급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급식조례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 제시	
5월 26일	7강: 살맛나는 마을 만들기 - 지역공동체 모범사례 - 정외영 (녹색살을 위한 여성모임 대표)	10여년간의 지역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소모임 꾸리기에서부터 지역 바꾸기에 대한 생생한 체험사례를 들 수 있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재활용가게와 공방, 생태교육에 대한 노하우 전수	
6월 2일	수료식	수료증, 수강선물 증정, 설문지 작성, 다과와 지역별 소모임 소개 포토스태딩을 통한 자기소개와 환경학교 수강 소감 나누기 진행	

## II-1. 환경학교 제1강 [쓰레기 문제의 생태적 해결방법]

교육 주제	쓰레기 문제의 생태적 해결방법				
교육 일시	4월14일	교육장소	남양주 시립 도서관	교육인원	45명
강사	성명	이대수	연락처		
	약력	경기 시민사회포럼 사무처장 경기도 소각장 시민연대 의장			
교육내용	<p>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원의 낭비와 더불어 자연환경, 구체적으로 숲을 파괴하고 바다를 오염시키며 생물들의 서식지와 생물종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채취하기 위해 나무를 자르고 땅을 파헤친다. 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숲을 파헤치고 나무를 자르면서 삼림을 훼손하게 된다.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매립장과 인근의 하천과 지하수 토양을 오염시키고 메탄가스를 배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소각장을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수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물질을 연소시킴으로써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p>				
준비물	자료집	참고자료			
평가	현대 사회에서 쓰레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서 문제의식을 심어주었으나 주부들 입장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법 제시가 부족해 아쉬웠다.				

## II-2. 환경학교 제2강 [우리 아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

교육 주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하여				
교육 일시	4월21일	교육장소	남양주 시립도서관	교육인원	약 40명
강사	성명	김순영	연락처	[REDACTED]	
	약력	‘환경엄마 김순영의 우리아이 밥상 지키기’ 저자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공저 ‘아토피를 잡아라’ 공저 ‘우리아이, 튼튼하게’ 저자 환경정의 다음을지키는사람들 운영위원 환경정의 이사 환경정의 조직위원장 역임			
교육내용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아토피 피부염은 대부분 먹거리를 통해서 치유되는 환경질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피부병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약 처방을 내리는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아토피가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토피를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먹거리와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어 진다. 아이가 어릴 경우엔 엄마가 먹거리를 집에서 통제할 수 있지만 점차 커갈수록 사회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우리 아이들을 유해한 먹거리로부터 지켜내는 일이란 각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마들이 점차 지역과 사회로 나서서 인식의 전환을 바꾸는 일에 동참해야 하리라 본다.				
준비물	자료집	참고자료	‘차라리아이를굶겨라’		
평가	환경과 건강에 관련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실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먹을거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다.				

## II-3. 환경학교 제3강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환경호르몬을 찾아라]

교육 주제	일상 용품에서 배출되는 환경호르몬				
교육 일시	4월28일	교육장소	남양주 시립 도서관	교육인원	45명
강사	성명	김미진	연락처	[REDACTED]	
	약력	환경정의 다음을지키는사람들 공동운영위원장 강사모임 ‘초록누리’ 대표 역임 환경정의 이사 및 집행위원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2’ 공저			
교육내용	일상적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조리용구나 합성세제류, 화장품, 새집 증후군, 전자파 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다. 조리용구의 경우는 후라이팬의 테프론 코팅의 위험성과 특히 ‘PFOA’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600여종의 식품첨가물 중 200여 가지 만이 자연첨가물이란 이야기도 했는데 일반인들이 식품첨가물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요지였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에 아이들 용으로 나온 것이 방부제 등의 부분이 전혀 감시되어지지				

	않고 사용되어 아이들을 난폭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선진국에선 퇴출시키는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 관대하다는 심각성을 되짚어주었다.		
준비물	자료집	참고자료	
평가	전체의 내용을 6가지 정도로 나누어 이야기 해주어서 이해하기 쉬웠다. 다음에는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		

#### II-4. 환경학교 제4강 [현장답사]

교육 주제	팔당 유기농 농사현장을 찾아서				
교육 일시	5월3일	교육장소	팔당 유기농 농업 현장	교육인원	약 25명
강사	성명	정영기	연락처	031-774-1590	
	약력	팔당생명살림 영농조합 홍보팀장			
교육내용	팔당지역에서 유기농을 실천하시는 농민들의 노고를 직접 느끼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아이들과 엄마들이 3모둠으로 나누어 '고구마 심기' '고추대 세우기' '잡초제거하기' '오이씨 심기' 등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일손 돕기가 끝난 후 정영기 홍보팀장과 생산자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팔당지역에서의 유기농 농사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준비물	자료집	참고자료			
평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시는 분들을 직접 뵈고, 같이 일을 해보니 정말로 환경에 대한 고마움과 보호에 대한 생각이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는 것이 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II-5. 환경학교 제5강 [삶을 키우는 교육, 자연주의 육아법]

교육 주제	21세기와 생명교육, 여성의 눈으로 보자				
교육 일시	5월12일	교육장소	남양주 시립도서관	교육인원	약 30명
강사	성명	김정희	연락처		
	약력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교육내용	요즈음 사람들은 대부분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데. 이는 기계론적, 환원론적 사고의 결과로 흄스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세계관으로 발전해갔으며 학교도 '사회계약설'의 틀 안에서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삶의 교육을 마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해왔는데 가정교육이 붕괴되면서 학교교육이 붕괴되게 되었다. 이는 '지식'을 가장 높이 가치를 주는 사회구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12세까지는 놀이로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에게 놀 멍석만 깔아주고 어른들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것				

	이다. 감수성 교육을 뒷전으로 하고 지식교육만 앞세웠을 때 아이들은 산만한 아이가 된다.		
준비물	자료집	참고자료	
평가	자연체험 교육, 도래교육, 가치교육 등의 중요성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II-6. 환경학교 제6강 [학교급식 이야기]

교육 주제	지역 농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을 바꾸자				
교육 일시	5월19일	교육장소	남양주 시립 도서관	교육인원	35명
강사	성명	이빈파	연락처	[REDACTED]	
	약력	학교 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 위원장			
교육내용	<p>학교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이 한끼 식사하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도 ‘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급식에 접근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기 보다는 학교회계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급식비는 ‘수익자 교육 부담비’로 총당되고 있음을 알아 급식개선에 대한 당당한 요구를 해야한다.</p> <p>실례로 전라남도와 제주 인천 등에서는 2003년도부터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시.도의 지원금을 책정 받아 급식개선에 이용하고 있는데. 우수농산물이라는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농산물, 더 나아가서 지역 농산물,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로의 급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 이후에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리라 본다.</p>				
준비물	자료집	참고자료			
평가	급식에 대한 적절한 현재 상황설명과 구체적인 학교운영 사례, 재정운영의 원칙 등을 잘 짚어주어서 앞으로 급식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상을 제시해 주었다.				

## II-7. 환경학교 제7강 [살맛나는 마을 만들기-지역공동체 모범사례]

교육 주제	녹색마을 가는 길-골목에서 길 찾기. 길 만들기				
교육 일시	5월26일	교육장소	남양주 시립 도서관	교육인원	약 35명
강사	성명	정외영	연락처	02-903-6603,4	
	약력	녹색 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공동대표			
교육내용	10여년전 상계동 부근에서 시작된 살맛나는 마을 만들기 운동에 관한				



	<p>강의였다. 주변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작지만 ‘책읽기 모임’과 ‘제2 외국어교육’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내 이웃의 아이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과 녹색가게 생태교육 등을 자차적으로 진행하였다.</p> <p>이러한 원동력은 개개인의 욕구를 중요시 해주면서 서로의 요구에 대한 뒷받침을 공동으로 돕는 형태였다. 모임이 커질수록 프로그램을 고민하기 보다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스스로 느껴 활동하고 자원활동가를 꾸준히 발굴하여 개인적 성장을 하게 도움으로써 그 개인이 다시 소수의 자원활동가를 이끄는 일꾼이 되게 한다.</p>		
준비물	자료집	참고자료	
평가	<p>정외영씨는 지난 10년간 지역 만들기 활동을 직접 해온 분이어서 실감나는 현장의 이야기와 더불어 청중의 궁금한 점을 실례를 들어가면 정확히 답변해 주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구체적 상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많은 참가자들에게 지역 소모임에 대한 의지와 욕구를 불러일으켰으며 힘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p>		

## II-8. 제8강 [수료식 및 지역별 토론회]

교육 주제	지역별 모임소개와 소감 나누기				
교육 일시	6월2일	교육장소	남양주 시립도서관	교육인원	약 35명
진행	성명 약력	소혜순 다지사 구리, 남양주 모임장	연락처	[REDACTED]	
교육내용	<p>4월14일에 시작하여 6월2일까지 이어진 환경학교 강의를 수료하신 분들의 수료식과 소감 나누기가 진행되었다. 떡과 음료를 나누며 그간 지난 이야기와 강의에 참여한 남양주 지역의 각 모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p> <p>마석지역의 육아교육 모임‘참기름터’ 하남지역의 재활용가게 ‘민들레 가게’ 저소득층 방과 후 교실‘민들레 배움터’ 팔당지역의 ‘풀씨 방과후 학교’ 그리고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남양주 모임 소개가 있었다. 팔당지역 생협 소모임인 ‘생활재 위원회’소개도 있었다.</p> <p>그리고 소감나누기는 ‘포토 스탠딩’을 이용하여 사진을 이용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p>				
평가	남양주 지역에서 활발히 시민활동과 소모임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었으며 이후 소모임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교육 주제	평가회의			
교육 일시	6월9일	교육장소	교육인원	
설문내용 분석	<p>1 환경학교를 수강하게 된 동기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가장 많은 답변)</p> <p>2 환경학교에 대한 느낌? 대체로 만족스럽다</p> <p>3 어떤 점이 좋았나? 강의 주제와 내용</p> <p>4 불만족스러운 점? 강사의 수준</p> <p>5 가장 좋았던 강의는? 살맛나는 마을 만들기</p> <p>6 가장 아쉬웠던 강의는? 쓰레기 문제의 생태적 해결방법</p> <p>7 다음번 환경학교에 보완되어야 할점은? 보다 전문적인 내용</p> <p>8 환경학교를 들으면서 달라진 생각, 변화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먹거리, 환경호르몬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생겼다. 구체적 계획, 적극적 실천, 단체간 연대가 필요하다.</p> <p>9 다음번에 듣고 싶은 강의주제는? 교육, 먹거리, 가정과 연관된 쓰레기 활용, 대인관계, 대안학교, 심화교육, 공동체생활-조직활동, 생태안 내교육, 영성, 인성 프로그램, 유전자조작, 중금속오염 등</p> <p>10. 관심 있는 소모임, 참여하고 싶은 활동분야? 환경학교, 아이교육모임(자연육아), 녹색소비분야, 환경강사모임, 생태학교, 방과후 학교</p> <p>11 다시사나 팔당 생협에 하고 싶은 말? 앞으로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단체 홍보에 힘써 달라, 감사의 말 등</p>			
기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li> <li>- 쓰레기 제로에 대한 구체적 상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li> <li>- 강의주제는 적합했지만 이론보다는 실천적인 면이 강화되어야 한다.</li> <li>- 강의식 교육보다는 토론식 학습이 더 효과적이다.</li> <li>- 일부 강의는 강사의 준비가 부족했고 대상에 대한 집중, 성의가 없었다.</li> <li>- 일손 돕기는 전반적으로 농촌현실과 생산자의 노고를 알게 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개별적 진행보다 전체적 프로그램이 없는 점이 아쉬웠다.</li> </ul>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 대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li> <li>-효과적인 홍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li> <li>-환경강사모임이나 앞으로의 활동과 연계되어야 한다.</li> </ul>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진행</li> <li>-지속적인 세미나, 스터디</li> <li>-생태교육 진행</li> <li>-천연비누 만들기</li> <li>-아나바다 장터</li> </ul>			

### III. 지역 생태답사

#### III-1. 제1차 생태답사(동구능)

교육 주제	제1차 생태답사(동구능)				
교육 일시	7월6일	교육장소	동구능	교육인원	20명
강사	성명	김은자		연락처	02-775-4526
	약력	숲 연구소 강사			
교육내용	<p>진행된 프로그램은 자연물로 자기 소개하기, 동구능의 나무와 자연 둘러보기, 거울로 보는 자연(뱀과 새의 눈으로 보는 세상), 나뭇잎 퍼즐 맞추기, 나무정해 시쓰기 였습니다.</p> <p>이하는 참가자들이 나무를 정해 쓴 시입니다.</p> <p>&lt;세월에 기대어&gt;          나무 껍질에서 세월이 흐른다          곁가지에 너의 힘듦이 있구나</p> <p>긴긴 세월 속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을까</p> <p>그 세월이 있었기에          나는 너에게 기대어 편히 쉴 수 있구나.</p> <p>&lt;나무의 노래&gt;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스르륵 스르륵 바람이 보인다.</p> <p>나무에 기대어 나를 말기니          나무가 주는 바람의 노래 소리가 아이들을 부른다.</p> <p>나뭇가지 틈새는 햇살의 나들이 장소          까칠한 나무등위는 개미들의 놀이터구나</p> <p>&lt;무제&gt;          내게 편안함을 주는 너          무척 힘들어 보이는구나</p> <p>붉은 속살 드러나 아파 보이는데          곳곳한 기상이 장하구나</p> <p>붉으스름한 고운 빛깔을 지니고          남인 듯 자신인 듯 어우러져서</p> <p>졸졸졸 흐르는 개울가에서          마른 목 시원함으로 채우렴</p>				
준비물				참고자료	
평가					

### III-2. 제2차 생태답사-홍유릉

교육 주제	제2차 생태답사-홍유릉				
교육 일시	9월7일	교육장소	홍유능	교육인원	20명
강사	성명	김선희	연락처	[REDACTED]	
	약력	숲 연구소 강사			
교육내용	자연을 아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질문하기 (왜 길 가운데는 풀이 자라지 않고 길 가장자리에만 풀이 자라날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습기가 많아서 등 똑같은 소나무 모양인데 잎이 2개인 것과 3개인 것, 5개인 것의 차이 는?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잣나무) 자연 그대로를 체험하고 느끼기, 다가가기				
준비물			참고자료		
평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자연에 대한 의문점들을 짚어보는 기회가 되었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자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III-3. 제3차 생태답사-천마산

교육 주제	제3차 생태답사-천마산				
교육 일시	10월26일	교육장소	천마산	교육인원	16명
강사	성명	민성환	연락처	[REDACTED]	
	약력	생태보전시민모임 강사			
교육내용	천마산은 숲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 중에 하나이다. 도시근교에서는 개발에 밀려 숲이 점점 적어지고 또 다양한 식물종이나 생물종이 서식 하기 어려운 추세에 있으므로 잘 보존된 숲을 지키려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멀리 숲 체험이나 산림욕을 하러 가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는 집 주변 의 작은 숲이나 공원을 지켜 언제 어디서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중요한 일일 수 있다.				
평가	자연은 단순히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보호하고 지 켜 나가야 할 존재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주변의 자연을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개발과 이윤이라는 논리에 자꾸 줄어드는 자연의 자리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자연과 더불어 살 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 III-4. 제4차 생태답사-송라산

교육 주제	제4차 생태답사-송라산				
교육 일시	11월16일	교육장소	마석 송라산	교육인원	18명
강사	성명	김지석	연락처	[REDACTED]	
	약력	전 생태보전 시민모임			

교육내용	<p>송라산의 유래(소나무가 많다는 뜻에서 송라산이라 불림) 주변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나무를 통째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옮겨 심으면서 숲을 조성한 흔적들이 보여진다. 나무가 어느 해에 잘 자라지 않은 흔적을 가지 사이의 간격을 보고 알아내는 방법을 공부하다.</p> <p>나무의 나이 알아내는 방법- 꼭 나이테를 보지 않더라도 가지 사이의 층을 보고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p> <p>1급수 물에 사는 수생곤충들을 살펴보았다.</p>
평가	아파트 뒷산이지만 의외로 식생이 다양하고 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새삼 주변 산에 대한 애정을 느끼는 계기로 작용했다.

### III-5. 제5차 생태답사-광릉수목원

교육 주제	제 5차 생태답사-광릉수목원				
교육 일시	12월 14일	교육장소	광릉수목원	교육인원	15명
강사	성명	이 현주	연락처	[REDACTED]	
	약력	생태교육 강사			
교육내용	<p>겨울 숲 바라보기, 겨울 숲에서도 항상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침엽수 알아보기</p> <p>메타세콰이어와 낙우송의 비슷한 점, 차이점 알아보기, 단풍나무가 왜 겨울에도 잎을 떨구지 않고 매달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p> <p>단풍나무의 종류-잎의 모양에 따라 구별하기</p> <p>우리에게 약이 되는 식물들은 무엇이 있을까?</p>				
준비물			참고자료		
평가					

## IV.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요리교실

### IV-1. 시루떡 만들기와 수박화채

교육 주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요리교실 1차- 시루떡 만들기와 수박화채				
교육 일시	8월 10일	교육장소	조안면 플씨 방과 후 학교	교육인원	아이들 20여명, 도우미-4명
강사	성명	소혜순	연락처	[REDACTED]	
	약력	<p>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구리, 남양주 지부장</p> <p>‘차라리 아이를 굶겨라2’ 공저</p> <p>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운영위원, 살림꾼</p> <p>‘안전한 먹을거리’ 전문강사</p>			
교육내용	<p>1. 쌀은 미리 불려서 방앗간에 가서 빻아둔다.</p> <p>2. 팔을 삶아서 적당히 짚어 놓는다.</p>				

	3. 쌀가루에 넣을 재료들을 아이들과 함께 씻고 다듬어 잘게 썬다. 4. 쌀가루를 아이들과 함께 체로 한번 친다. 5. 체로 친 쌀가루에 단호박, 고구마, 대추 썬 것을 잘 넣고 버무린다. 6. 모듬별로 팔고물 한 켄, 쌀가루 한 켄씩 시루에 넣고 한쪽에선 시루 번 반죽을 한다. 7. 시루 번을 붙여 김이 새지 않도록 떡을 찐다. 8. 떡이 익는 동안 아이들과 수박화채 만들기를 진행한다.	
준비물	시루떡- 쌀가루, 찹쌀가루, 팔고물, 단호박, 고구마, 대추, 밀가루-시루번 수박화채-수박, 오미자효소	참고자료
평가	- 전통 시루로 떡을 처음 해보는 경험을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가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떡을 해서 동네 분들과 나누어 먹는 과정을 통해 전통음식의 가치를 느끼는 것과 함께 우리의 미풍양속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설탕이나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를 쓰지 않고 고구마, 단 호박, 대추 같은 천연의 단맛을 내는 식품들로 맛을 낸 자연스러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요리시간이어서 더욱 보람이 있었다.	

#### IV-2. 콩국수 만들기

교육 주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건강한 요리교실 2차- 콩국수 만들기				
교육 일시	8월17일	교육장소	오남리 동부아파트 지수정씨 집	교육인원	아이들 15명, 어른 7명
강사	성명	지수정	연락처		
	약력	환경정의 다음을지키는사람들 구리, 남양주 회원			
교육내용	1. 흰 콩을 하루 밤 물에 불린다. 2. 불린 콩을 삶아 식혀서 믹서에 곱게 간다. 3. 오이, 토마토는 얇게 채 썰어 놓고 달걀은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반을 잘라 놓는다. 4. 국수를 삶아 적당량씩 그릇에 담는다. 5. 국수 위에 2의 콩과 물을 적당한 농도로 섞은 콩물을 붓고 소금으로 간한다. 6. 5번 위에 준비해둔 오이, 토마토, 달걀을 얹어 상에 낸다.				
준비물	흰 콩, 오이, 토마토, 달걀, 깨, 국수	참고자료			
평가	콩물은 어른들이 준비해 주었지만 아이들이 직접 오이 토마토, 달걀을 썰면서 요리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관심을 기울였다. 요즘 콩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자신들이 직접 요리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콩국수를 잘 먹는 모습을 보여 뿌듯했다.				

#### IV-3. 인절미 만들기

교육 주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건강한 요리교실 3차-인절미 만들기				
교육 일시	8월 24일	교육장소	구리 인창동 아 름마을 삼성아 파트 놀이터 옆 공터	교육인원	어른15명, 어린이 30명
강사	성명	남희정	연락처		
	약력	환경정의 다음을지키는사람들 먹거리,생태교육 강사			
교육내용	<p>I. 팔당에서 나온 무 농약 오리농법 찹쌀로 밥을 지었다.</p> <p>II. 찹쌀밥을 어린이들이 나누어서, 각자 준비해온 절구로 열심히 찼다.</p> <p>III. 적당히 찰떡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 고물을 묻히고, 시식했다.</p> <p>IV. 주변 정리까지 깔끔히 하고 마무리.</p>				
준비물	찰쌀, 콩고물, 절구, 절구 이, 쟁반	참고자료			
평가	<p>빵과 과자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전통음식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행사의 주요 목적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면서 작은 결과물인 인절미를 내놓았다.</p> <p>방앗간에서 맞춘 인절미처럼 찰지고 맛있지도 않았고, 간도 안 맞았지만, 그래도 내가 힘들여 만든 떡이라는 생각에 모두들 즐거워했다. 심지어는 집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주려고 한 주먹 씩 싸가는 어린이도 보였다.</p> <p>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사후활동이 미비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p>				

#### IV-4. 자유요리

교육 주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건강한 요리교실 4차-자유요리 (된장찌개, 야채볶음밥, 감자전, 계란찜, 감자튀김)				
교육 일시	8월31일	교육장소	하남 지역(민들 레 방과 후 학 교)	교육인원	아이들 12명 도우미3명
강사	성명	김지연	연락처		
	약력	환경정의 다음을지키는사람들 먹거리분과장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2' 공저 다음을지키는사람들 운영위원			
교육내용	<p>하남지역의 저소득층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요리교실로 두 모둠으로 나누어 한 모듬은 야채볶음밥과 감자전을 또 다른 모듬은 된장찌개, 계란찜, 감자튀김을 했다.</p> <p>모두 전통요리는 아니었지만 부모님들이 끼니를 잘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주변에 있는 재료로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선정해서 해보는 기회를 가졌다.</p>				

준비물	감자, 호박, 양파, 피망, 파, 마늘, 달걀, 된장, 밀가루, 현미유, 멸치, 두부, 버섯	참고자료	
평가	<p>재료의 손질, 씻는 과정, 썰기, 요리과정까지 모두 아이들이 직접 참가해서 본인들이 마무리 지었다. 가사활동에 능숙한 아이들이 많아 진행은 순조로운 편이었으나 그중 한 아이가 계속 요리보다는 선생님께 안아달라고 애정결핍을 보이는 아이가 있었다.</p> <p>도중에 지루해 하는 아이들도 활동을 바꿔가면서 참가했고 뒷정리까지 마무리를 잘해 체험활동에 잘 참가해 주었다.</p>		

## V. 다음지킴이환경학교 2 - 심화학습 및 실천과제

### V-1. 환경실천과제-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방문

교육 주제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방문				
교육 일시	6월22일	교육장소	강북구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사무실	교육인원	15명
교육내용	<p>환경학교의 후속작업으로 수강생들의 희망에 따라 모범적으로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삶의 활동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활동방식을 배우고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함. 사무실, 어린이 도서관, 방과후 교실, 재활용 작업장 풀빛 살림터 견학</p> <p>특징적이었던 건 단순히 재활용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을 본인이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 본인이 쓰던 물건을 직접 고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는 점이다. 작업장에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도구들과 재봉틀이 있어 남녀 누구나 필요한 부분을 수선해 갈 수 있다.</p>				

### V-2. 환경실천과제 - 천연비누 만들기

교육 주제	환경실천과제-천연비누 만들기				
교육 일시	6월 29일	교육장소	지금동주민자치센터	교육인원	15명
강사	성명	장은정	연락처	[REDACTED]	
	약력	천연비누 만들기 강사			
교육내용	<p>- 방부제와 색소, 향료 등이 들어간 시판되는 비누가 아닌 천연 식물성 유지를 넣은 아토피비누 만들기.</p> <p>- 올리브유, 팜유, 코코넛유, 미강유, 포도씨유 등을 가성소다수와 결합시켜 비누로 만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과, 젖는 과정에 공기층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li> <li>- 미강유는 아토피에 좋은 유지로 알려져 있고, 포도씨 유는 방부제 대용으로 사용.</li> </ul>
평가 및 사용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은 없지만 거품이 많이 일어서 개운했다.</li> <li>-머리도 감고, 린스 대신 식초를 사용하니까 샴푸보다 더 좋았다.</li> <li>-우리 몸도 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물도 오염시키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든 비누로 몸을 씻는다고 생각하니 기분도 좋고, 일석다조였다.</li> </ul>

V-3. 환경실천과제 - 대안생리대 만들기

교육 주제	환경실천과제- 대안생리대 만들기				
교육 일시	7월20일	교육장소	지금동 주민자치센터	교육인원	18명
강사	성명	김미란	연락처	[REDACTED]	
	약력	환경정의 다음을지키는사람들 강사 ‘차라리아이를끓겨라2’공저 다음을지키는사람들 운영위원 대안 생리대, 안전한 먹거리 전문강사			
교육내용	일회용 생리대가 수많은 쓰레기를 배출하여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측면에 대해 배우고, 여성들의 건강과 질환에 일회용 생리대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같이 공부했다. 생리통과 자궁질환의 원인이 되는 일회용 생리대 대신 면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보고 사용 후기를 같이 논의하기로 함				
준비물	광목, 용, 실, 바늘		참고자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쉽고, 한번 만들면 계속 쓸 수 있어 좋다.</li> <li>- 일회용생리대가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불편해도 계속 면 생리대를 사용하기로 했다.</li> <li>-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용하다 보니 착용감이 너무 좋아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li> <li>- 냄새가 나지 않고 생리통이 없어지는 경험을 했다.</li> <li>- 생리 끝 무렵 색깔이 검어지면서 생리통이 지속되던 것이 없어졌다.</li> <li>- 빨래하는 것도 찬물에 담가두었다가 삶으니까 새것처럼 깨끗해져 기분이 상쾌해졌다.</li> <li>- 앞으로 딸들 것도 만들어 준비해 줄 계획이다.</li> </ul>				

V-4. 환경심화학습 : 독서토론-‘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교육 주제	독서토론-‘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교육 일시	7월13일	교육장소	지금동 주민자치센터	교육인원	15명
토론 내용	<p>생태적이고 자연 순환적인 삶의 방식이 지속되고 있는 라다크의 삶의 방식을 배움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공유했다. 자본주의 발전은 성장과 개발로 대표되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과의 순환고리가 깨어지고 자연이 파괴되어 나가는 과정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도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경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시되는 사회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고 지켜나가야 할 정말 중요한 가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필요한 겸허하고 여유로운 삶의 방식임을 되돌아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 본다.</p>				
평가					

V-5. 환경심화학습 : 독서토론-‘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

교육 주제	독서토론- ‘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				
교육 일시	9월14일	교육장소	지금동 주민자치센터	교육인원	13명
교육내용	<p>누구나 자신이 기른 식물에서 씨앗을 받아 이듬해에 다시 그 씨를 뿌려 농사를 지어 식물을 수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씨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것이 불법이 되어 버린다면 어떨까? 농사를 지으려면 해마다 다시 특정종자회사에 가서 씨앗을 사다가 심어야 한다면? 씨앗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고 그 씨앗을 구하기 위해 아무리 비싸더라도 값을 주고 구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책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종자의 특허권을 신청하여 지적소유권으로 종자의 권리를 몇몇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현재 제3세계의 토착자원에 대한 특허신청으로 지적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유전자조작식품의 터미네이터 기술이 종자의 생식력을 없애면서 해마다 씨앗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처럼 앞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농사를 짓는 행위가 몇몇 기업의 손으로 집중되지 않고 토착 종자들이 보존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p>				
준비물	참고자료				
평가	<p>미래를 예측한 글을 통해 현재의 농업현실과 다국적 기업의 농업지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각 국가와 인간의 삶에 있어 식량과 농사자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p>				

V-6. 환경심화학습 : 안전한 먹을거리 심화교육-식품첨가물 강의

교육 주제	안전한 먹을거리 심화교육-식품첨가물 강의				
교육 일시	9월22일	교육장소	구리 원일아파트 단지 옆 주님의 교회	교육인원	25명
강사	성명	소혜순		연락처	
	약력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먹거리 전문강사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2' 공동저자			
교육내용	<p>식품첨가물의 정의, 종류, 인체와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맛, 향을 개선하고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 첨가하는 식품 이외의 소재를 말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류만 해도 600여종이 넘는다. 식품첨가물은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그 위험성이 많이 인식되어 있지 않지만 인체에 들어가서 세포를 공격하거나 유전자를 공격하고 호르몬 수용체를 공격하거나 알레르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즈음엔 인체 내 정서문제를 야기시키는 행동독리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식품첨가물은 위속에서 서로 다른 첨가물끼리 섞이면서 새로운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생성하기도 하므로 아무리 소량의 첨가물이라 해도 방심하고 섭취해서는 안된다.</p>				
준비물	참고자료				
평가	평소 잘 몰랐던 식품첨가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아이들의 굳건질거리나 가공식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V-7. 환경심화학습 :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심화교육

교육 주제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심화교육				
교육 일시	9월29일	교육장소	구리 원일 아파트 단지 옆 주님의 교회	교육인원	26명
강사	성명	한미경		연락처	
	약력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유해물질 전문강사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2' 공저			
교육내용	<p>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친유성이라 몸속에 있는 지방에 쌓일 수 있다. 일반 합성세제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는 산소와 햇빛과 만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치명적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므로 가정에서 친환경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나 화장품에 들어있는 방부제, 살균제, 산화방지제, 향료, 색소 등의 화학물질의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유방암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파라벤이 검출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파라옥시 안식향산 계통의 방부제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화장품의 표시지정 성분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불필요하게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거나 꼭 화장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p>				
준비물	참고자료				

평가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던 세제나 화장품 등에 환경에 해를 끼치고 인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화학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으면 생활상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	---

**V-8. 환경심화학습 : 급식이야기 심화교육-이빈파**

교육 주제	<b>급식이야기 심화교육-이빈파</b>				
교육 일시	10월6일	교육장소	구리 원일 아파트단지 옆 주님의 교회	교육인원	20여명
강사	성명	이빈파	연락처	[REDACTED]	
	약력	전국 급식네트워크 사무처장			
교육내용	<p>학교급식의 내용이 무엇이고 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부모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p> <p>1차 강의보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p> <p>수입농산물이 학교라는 대량급식을 통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현실과 정부미의 사용,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의 문제, 위생과 소독약품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급식현실의 문제점과 이것을 예산으로 뒷받침해서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p> <p>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개선을 위해 해야할 일과 급식소위원회의 의무화, 바람직한 사례제시 등 학부모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가 진행되었다.</p>				
평가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보다는 학교운영과 재정운영, 이를 둘러싼 역학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실감있게 다가온 강의였다.				

**V-9. 환경심화학습 : 방사선 조사식품**

교육 주제	<b>방사선 조사식품</b>				
교육 일시	11월8일	교육장소	구리 원일아파트 윤남순씨 집	교육인원	15명
강사	성명	김지연	연락처	[REDACTED]	
	약력	<p>환경정의 다음을지키는사람들 먹거리분과장</p> <p>다음을지키는사람들 운영위원</p> <p>다음을지키는사람들 먹거리 강사</p>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선 조사식품이란 무엇인가. 그 표기상태에 관한 강의.</li> <li>- 방사선조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얼마나 진행되는지, 그것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표기가 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있었다.</li> <li>-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방사선조사가 안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발언이 있었지만 국내의 방사선조사 식품 표시기준이 EU의 것처럼 제품의 재료에까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에만 표</li> </ul>				

	시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허점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 또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방사선 조사 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준비물		참고자료
평가	- 잘 알지 못했던 분야인 방사선 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앞으로 인체위해성 및 표시사항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V-10. 환경심화학습 : 독서토론- ‘ 물은 답을 알고 있다 ’**

교육 주제	독서토론- ‘ 물은 답을 알고 있다 ’				
교육 일시	12월7일	교육장소	지금동 소혜순 씨집	교육인원	13명
교육내용	<p>이 책을 접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한 가지 점은 모두 자신의 말이 얼마나 신중하고 한 마디 한마디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물의 결정들이 어떤 말을 듣는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가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름답기도 하고 흉하게 일그러지기도 한 결정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는 충격을 어떤 이는 후회와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p> <p>사람과 사람사이에서나 모든 사물과의 관계에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감정과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를 서로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p> <p>이 책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수돗물에 첨가하는 염소와 불소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도 겸하여 이루어졌다.</p>				

교육 주제	평가회				
교육 일시	12월28일	교육장소	구리 원일아파트 윤남순씨집	교육인원	17명
교육내용	<p>내년에도 생태답사 프로그램을 지속했으면 한다.</p> <p>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둘러볼 여유를 가지지 못했는데 우리 주변의 자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p> <p>다른 시각으로 산이나 나무, 풀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p> <p>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 좋았다.</p> <p>환경학교의 영향으로 구리지역 소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p> <p>자체적인 독서토론과 학습, 환경학교를 통한 공부도 다른 곳에서도 소모임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한 것 같다.</p>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도 나들이 모임이나 방과 후 모임 등으로 소모임을 활동을 계속 하고자 한다.
---

## 5. 평가

1. 중앙 집중화 되어있는 생태교육의 체험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구리, 남양주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로 하여금 지역 주변의 자연환경에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키고 보존에의 욕구와 의지를 키우는데 일조했다. 특히, 강의나 학습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과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 방학 중 아이들과 전통요리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체험활동의 한 영역을 개척했으며, 전통음식에 대한 아이들과 엄마들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 환경학교를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에 대한 인식제고와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을 알리고 지역공동체 사례를 학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4. 지역 생협의 소모임이나 교육소모임 등 분산되어 있던 지역 소모임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같이 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5. 가시적인 성과로는 구리, 조안, 덕소 지역에 생태적인 소모임들이 생겨남으로써 생태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들이 마련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부의 리더쉽 역량들이 발굴, 육성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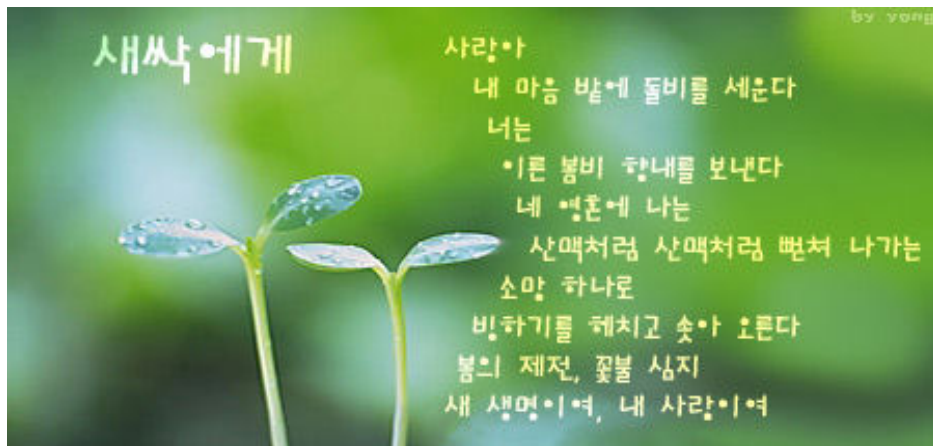
다/음/지/킴/이/환/경/학/교/자/료/집

# 2005년 다음지킴이 환경학교



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후 원 :  **KYOBO**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Kyobo Foundation  
for Education & Culture



다음지킴이 \_\_\_\_\_ 님

당신은  
다음 세대에게  
맑고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앞장서는  
다음지킴이가  
되었습니다.



# 일 정

[제 1 강] 쓰레기 문제의 생태적 해결방법 ..... P.

- ▶ 모시는 분 : 이대수
- ▶ 일 자 : 2005년 4월 14일

[제 2 강] 우리 아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 P.

- ▶ 모시는 분 : 김순영
- ▶ 일 자 : 2005년 4월 21일

[제 3 강] 집안에 숨어있는 환경호르몬을 찾아라 ..... P.

- ▶ 모시는 분 : 김미진
- ▶ 일 자 : 2005년 4월 28일

[제 4 강] 현장답사 - 팔당 유기농 농사현장을 찾아서 .....

- ▶ 일 자 : 2005년 5월 3일

[제 5 강] 삶을 키우는 교육, 자연주의 육아법 ..... P.

- ▶ 모시는 분 : 김정희
- ▶ 일 자 : 2005년 5월 12일

[제 6 강] 학교급식이야기- 지역 농산물로 아이의 밥상을 ..... P.

- ▶ 모시는 분 : 이빈파
- ▶ 일 자 : 2005년 5월 19일

[제 7 강] 살맛나는 마을 만들기- 지역 공동체 모범사례 ..... P.64

- ▶ 모시는 분 : 정외영
- ▶ 일 자 : 2005년 5월 26일

[제 8 강] 수료식 및 지역별 토론

- 일 자 : 2005년 6월 2일

## [부록]

I. 생활유해화학물질과 그 영향 ..... P.71

II. 식품첨가물표 ..... P.75



# 쉬어가는 공간



## 어머니께 2 - 공광규

어머니  
 흔들려 주세요  
 바람이 나뭇가지 흔들는 모습으로  
 저를 흔들려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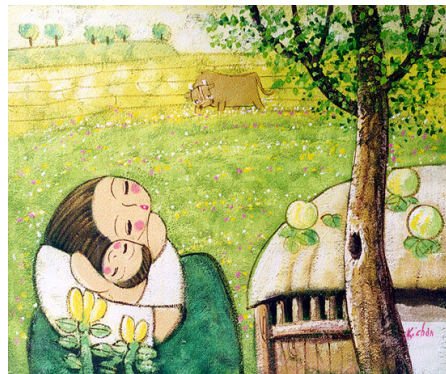
한 세상  
 흔들리며 산다는 건  
 황량한 철로변 구절초만큼  
 아름다운 일이겠지요

강아지풀 씨앗도 바람 불어야  
 땅에 떨어지데요  
 봄에는  
 민들레 꽃씨도 그랬지요 아마

풀잎들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흔들리며 한 세상  
 살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반란인가요  
 연약한 가지일수록 더 크게  
 겨울을 흔들네요

저도 저렇게 제 하늘  
 흔들고 싶어요  
 한 세상 흔들며  
 겨울을 지내고 싶어요.



## 쉬어가는 공간



### 아기를 보면서 - 김남주

제비꽃을 만지작거리는 아기의 손가락  
봄바람에 한들한들 춤추는 고사리 같고

장다리밭에서 나비를 쫓는 아기의 눈동자  
초롱초롱 빛나는 것이 초저녁의 샛별 같고

하늘 향해 두 팔 벌리고 기지개를 켜는 품은  
비 온 뒤 수욱수욱 자라나는 죽순 같네



<삶과 죽음> 중 -구스타프 클림트

오 여보게 친구 우리 아기 좀 보게  
어서어서 키워서 그 손에 호미를 쥐어줘야겠네  
어서어서 키워서 그 손에 괭이를 쥐어줘야겠네

봄이면 들에 나가 나무이나 캐먹고 살라고 그러는게 아니네  
가을이면 산에 올라 칩뿌리나 캐먹고 살라고 그러는게 아니네  
콩나물 한 그릇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서울이 무서워서 그러네  
별 하나 아름답게 키우지 못한 서울 하늘이 저주스러워서 그러네  
고기 한 마리 병들지 않고 살지 못하는 서울의 강이 싫어서 그러네

우리 아기 고운 아기  
나무이나 뜯어먹고 칩뿌리나 캐먹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지언정  
맑은 물 맑은 공기 푸른 하늘과 가까이 벗하며  
흙과 더불어 시골에 살았으면 싶어서 그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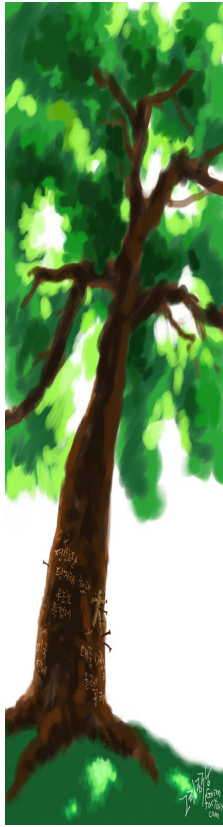
---



# 쉬어가는 공간



사람만이 한 그루 나무를 심을 줄 안다 (원제 : 사랑은) - 김남주



겨울을 이기고 사랑은  
 봄을 기다릴 줄 안다  
 기다려 다시 사랑은  
 불모의 땅을 파헤쳐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리고  
 천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 나무를 심을 줄 안다

사랑은  
 가을을 끝낸 들녘에 서서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너와 나와 우리가  
 한 별을 우러러보며.



## 쉬어가는 공간

### 보 령 - 백창우

1

보령, 아이야  
저 들을 보령  
이름 낮은 것들 다 보듬어 안은  
저 넓은 들을 보령  
소나기 쏟아지고  
회오리바람 지나간 뒤에도  
언제나 의연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저 들처럼, 저 들의 넉넉한 품처럼  
아이야, 따뜻한 사람이 되렴  
상한 가슴 아 끌어안고 일어서는  
살아 있는 사람이 되렴

2

보령, 아이야  
저 시내를 보령  
큰 세상을 찾아 먼길을 가는  
저 작은 시내를 보령  
바위가 막아 서고  
칩칩 산이 앞을 가로막아도  
언제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 시내처럼, 저 시내의 뚝심처럼  
아이야, 강한 사람이 되렴  
모진 땅 자갈밭 일구어 꽃을 피우는  
살아 있는 사람이 되렴





#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환경 호르몬을 찾아라

글 |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 I. 유해물질이란 무엇인가?

인류에게 해를 주는 유해물질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화학물질이다. 인류는 수 천년동안 화학물질에 적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 수와 양이 적어 우리의 몸이 그에 적응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화학물질이 문제가 된 것은 산업혁명이후 지난 100년간 더 정확히는 불과 지난 50년간 인류가 적응해야 할 화학물질의 수가 수십만 가지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개발되어 사용 중인 화학물질은 10만가지가 넘고 개발된 것은 1000만 가지나 된다. 식품에 들어가는 방부제와 색소를 비롯하여 농약과 살충제, 의류와 표백제, 건축의 마감재, 가구의 외장처리까지 현대인의 생활에서 화학물질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맹독성인 것도 많으며 몸 안에 축적되어도 분해되지 않거나 체외로 잘 배출되지도 않는다. 또한 면역체계나 신경전달물질에 제멋대로 결합하여 몸 안의 면역질서를 뒤엎기게 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부록, 화학물질표 참조)

더구나 1ng(나노그램: 1g을 10억으로 나눈 양), 1pg(피코그램: 1g을 조로 나눈 양)으로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호르몬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II. 환경호르몬의 이해

### 가. 환경호르몬(내분비 교란물질)이란?

환경호르몬이란 몸 밖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화학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 마치 호르몬인 것처럼 역할을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호르몬이라는 것은 뇌의 정보를 전달받아 성장에 관여하거나 분비기관을 조절하고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래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화학물질의 작용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산업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화학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 정상호르몬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결합하여 정상호르몬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 나. 어디서 어떻게 발생되는가?

합성세제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와 기타첨가물, 농약, 살충제, 제초제,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용기, 랩에 사용되는 원료들이 환경호르몬으로 밝혀졌는데 이것들이 공기, 물, 음식을 통해 몸 안에 축적된다. 비닐과 플라스틱, 랩에 음식이 닿게 하거나

전자렌지에 넣고 사용할 경우 음식에 환경호르몬이 녹아 나오며 합성세제는 피부를 통해 전달된다. 또한 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태우면 다이옥신이라는 환경호르몬이 공기 중에 배출되며 캔 음료나 1회용품의 부식을 막거나 방수를 위해 안쪽에 바르는 코팅제도 모두 환경호르몬이다.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색소와 방부제를 비롯한 식품첨가물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환경청이 발표한 환경호르몬 의혹물질은 70가지이지만 현재 사용중인 10만가지의 화학물질 중에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다.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발생된 환경호르몬은 잘 분해되지 않아 자연계에 오랜 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가 쉽고, 몸 안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축적된다. 환경호르몬이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성장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아, 갓난아이, 임산부이다. 일반적으로 여성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정자수를 감소시키는데 1990년대의 남성의 정자수가 1940년대보다 45% 감소하여 불임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질암, 정소암, 고환암등 생식기 관련 질병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신경기능장애, 발암성, 면역력 저하로 인한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

#### 라. 환경호르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 첫째, 유리, 스테인레스, 도자기, 면등의 천연소재의 것을 선택한다.
- 둘째,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은 피한다.
- 셋째, 농약사용을 최대한 줄인 유기농산물을 선택한다.
- 넷째, 가격이 싼 것을 고르기보다 성분표를 보고 안전하게 만들어진 것인가를 보고 선택한다.
- 다섯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식을 선택한다.

### III. 유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대처방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유해물질에 대한 것은 부록에서 참조하기로 하고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살펴보자.

#### 가. 비닐과 플라스틱은 환경호르몬 덩어리

##### ▶ 유해성

1. 샤워커튼이나 새 차의 플라스틱에 많이 쓰는 염화비닐은 피부알레르기, 호흡곤란, 간염, 기관지염을 일으킨다.
2. 헤어스프레이에 많이 사용되는 폴리비닐피롤리돈은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3. 폴리에스테르 옷감은 피부염을 일으킨다.

✓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1. 식기와 음식저장기는 플라스틱(멜라민 포함) 대신 도자기나 유리, 스테인레스 등의 천연소재로 바꾼다.
2. 플라스틱 장난감 대신 목재나 돌, 면 등의 자연소재 장난감을 마련한다.
3. 불가피하게 플라스틱류인 PVC상품을 집안에 들여놓아야 한다면 몇주동안 바람을 쐬 후 실내에 들고 환기를 자주 한다.
4.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는다.
5. 랩보다 뚜껑이 있는 유리그릇 등을 사용하여 음식을 보관한다.
6. 비닐과 플라스틱은 태우면 다이옥신등의 유독성 물질이 다량 배출되므로 절대 태우지 않는다.

**나.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여 만드는 새 가구**

목재가구 소재인 합판, MDF, 원목 등을 가공할 때 많은 양의 접착제(포름알데히드)와 방부제(붕산염) 등을 사용하는데 포름알데히드는 적은 양이라도 공기 중에 발산되면 유독가스가 되어 의욕저하, 불면증, 천식을 일으키며 유전인자를 변화시킬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또한 붕산염은 눈을 자극하고 생식능력을 떨어지게 한다. 원목가구는 독성이 강한 방부제 용액에 6개월 이상 담근 후 만들어지며, 천연가죽 쇼파 또한 가공과정에서 많은 방부제와 색을 내는 염화메틸렌 같은 유해물질이 사용된다.

연성 폴리에틸렌을 소재로 한 유아용 플라스틱 가구들과 합성섬유, 합성가죽(레자)으로 만들어진 쇼파 등은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환경호르몬을 계속해서 발생시킨다. 아파트와 같은 밀폐형 주거형태에서는 공기 중에 흘러나온 이러한 유해물질들을 피부로 흡수할 수밖에 없으며 아이들의 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1. 실내에 목재가구가 있는 경우 자주 환기시켜 유해물질들이 빠지도록 한다.
2. 불필요한 가구의 구입을 자제하고 꼭 필요할 시에는 중고가구를 이용한다.
3. 플라스틱제품으로 된 유아용 가구를 구입하지 않는다
4. 쇼파는 천연섬유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미 레자, 가죽쇼파를 사용중일 때에는 환기를 자주 하는 것과 실내에 숲이나 벤자민, 고무나무등 유해물질 흡착 효과가 큰 식물들을 놓아둔다.

**다. 유독가스를 내뿜는 벽지와 바닥재**

그 자체가 합성수지로 되어 있는 실크 벽지, 발포 벽지 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종이 벽지라고 하는 것도 인쇄 잉크, 광택제등에 쓰인 합성 화학물질과 합성풀에서



유해물질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특히 벽지나 바닥재에 모두 들어있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은 무색, 무취의 기체로 휘발성이 있어 이 유독가스가 다 발산되려면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며 환기가 잘 안 되는 겨울철에는 미량이라도 계속 발생하여 쌓이게 된다. 이런 방에서 살게 되면 의욕저하, 두통, 현기증과 불면증이 생길 수 있으며, 천식을 유발하고, 다른 자극에 과민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바닥재의 경우도 합성수지로 된 것을 쓰는 집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경우 발바닥 등 우리 신체의 일 부분과 마찰되면 정전기를 발생시켜 전자파의 경우와 비슷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 ✓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1. 벽지나 바닥재를 자주 갈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갈아야 한다면, 환기를 잘 시킬 수 있는 여름철에 한다.
2. 벽지는 한지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바닥재는 쪽마루나 장판지를 써서 콩기름을 먹이는 것이 좋다.
3. 합성수지 제품으로 갈았을 경우에는 특히 환기에 유의해야 하며 순면이나, 대나무, 왕골 등 독성이 없는 천연 소재로 된 깔개를 깐다.

#### 라. 합성세제는 신경조직을 약화시킨다.

합성세제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세포벽을 절단하는 성질이 있어 호흡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면 신경조직을 약화시킨다. 더구나 샴푸, 린스, 치약등에 포함된 계면활성제는 피부와 입 속에 직접 닿기 때문에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체내를 두루 돌아다니며 만성적인 간장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피부막을 녹여 주부습진을 일으킨다. 요즘 기능강화 세정제가 여러 종류 나오고 있는데, 놀라운 세척력을 가진 것일수록 인체에 더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올라이트라는 보조 첨가제는 강바닥에 축적되며, 때를 빼는 것이 아니라 때를 가리기만 하는 형광표백제는 발암성분이다.

#### ✓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1. 자연분해세제를 사용한다.(특히 계면활성제가 함유되지 않은 세제를 사용한다).
2. 세제 사용량을 줄인다.
3. 염소가 없는 제품을 이용한다.
4. 욕실과 싱크대를 청소할 때는 초강력 세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비누로 자주 씻어준다.

#### 마.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살충제

바퀴벌레, 개미, 파리, 모기, 벼룩, 좀벌레 등을 퇴치하기 위해서 설치용 살충제,



훈증식 살충제, 공중살포식 살충제, 마치 도료처럼 바르는 살충제등이 사용되는데, 이런 제품에서도 독성 기체들이 끊임없이 나와 온 집안에 퍼진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에는 무색무취인 것이 많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데, 사실은 아주 독성이 강하다. 특히 신경계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두통, 현기증, 경련, 구역질 및 피부와 호흡계 손상을 일으키며 간과 신장을 괴사시키기도 한다.

▶ 구성성분

헵타클로르, 카바메이트, 디클로르보스, 벤젠, 붕산염, 유기인산, 클로르테인등

✓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1. 바퀴벌레나 개미 퇴치에는 은행잎이 효과적이다. 가을에 은행잎을 주워 양파망 같은데 담아 바퀴벌레나 개미의 통로에 두면 벌레들이 많이 줄어든다.
2. 개미는 박하를 싫어한다. 고춧가루 또는 설탕과 붕산을 반씩 섞어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에 뿌려 놓아도 좋다.
3. 파리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몰려드는 습성이 있으므로 해가 들기 전에 창문을 닫아 둔다. 또한 투명한 비닐등에 물주머니를 만들어 천장에 달아두면 효과가 크다.
4. 모기퇴치는 모기약이나 모기향보다 모기장을 활용하도록 한다.
5. 옷이나 이불은 자주 햇빛을 쬐어 준다.

바. 향기 속에 숨어 있는 독, 방향제

방향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감각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터치 후레쉬’, ‘팅커벨’, ‘향기접속’, ‘파르텔’과 같은 방향제인데 악취를 보다 강한 향으로 감싸서 악취를 맡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방향 자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한 탈취제로 대표적인 것으로 숲이 있다. 세 번째는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냉장고 냄새 제거제인 ‘냄새 먹는 하마’류나 ‘페브리즈’ 류등 대부분의 탈취제품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제품에 들어있는 안정화 이산화염소가 강한 산화력으로 냄새나는 물질을 산화시킨다.

방향제의 성분 표시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거의 모든 방향제에 들어가 있는 에탄올의 경우 인체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며, 일부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메틸 알콜이나 이소프로판올 등은 개인에 따라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시판되는 방향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1. 적어도 하루에 5번 이상 자주 환기를 한다.
2. 커튼이나 카펫, 자동차 시트 등의 섬유는 정기적인 세탁을 하다.

3. 집안에 습을 놓아둔다.
4. 모과나 솔가지, 허브식물등 은은한 자연의 향기를 풍기는 것을 놓아둔다.

#### 사. 두통의 주범 가스렌지(배기가스)

천연가스나 프로판 가스등은 타는 동안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이 나오고 이런 물질들은 면역기능 약화, 기간지염 등과 우울증, 신경과민, 염세증 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물질들은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며 누워있는 아기에게는 해가 더 크다.

#### √ 유해물질에서 벗어나려면

1. 가스렌지를 사용할 때에는 환기팬이나 창문을 열어 반드시 환기를 시킨다.
2. 환기팬을 자주 청소하여 준다.
3. 가스파이프등을 자주 점검하여 가스의 누출로 인한 피해를 막자.
4. 곰국등 오랜시간 가스불에 조리해야하는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조리시에는 가능한 한 가족들이 집에 머무르지 않는 시간에 하고, 좁고 밀폐된 장소에서의 조리는 피하도록 한다.

#### 아. 식탁위의 적군, 식품첨가물

식품가공시 상하지 않게 하거나 색과 맛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화학첨가물을 식품첨가물이라고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의 종류는 400여종에 이르며 체내에 들어오면 50~80%정도만 배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축적된다. 게다가 인체에 남아있는 첨가물들이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이 되기도 한다. (부록. 식품첨가물표 참조). 식품첨가물은 면역력 저하, 발육장애등의 신체적 영향뿐만 아니라 난폭함, 인내력저하, 집중력 저하 등의 정신적 장애까지 불러오고 있으며 그 부작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방부제 / 중추신경마비, 발암성물질, 기관지염, 천식유발
- 화학조미료 /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함. 두뇌장애, 성장장애, 대사 장애, 쓴맛을 잃어버리게 됨.
- 표백제, 살균제 / 우유, 도라지, 빵, 과자등에 쓰임. 천식 기관지염, 알러지
- 산화방지제 / 통조림, 냉동식품, 치즈, 식용유, 버터에 쓰임. 칼슘부족, 기형아, 염색체 이상, 유전자 손상.
- 착색제 / 황색, 적색, 청색 색소 등.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 치즈, 버터 등에 쓰임.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천식에 영향.
- 발색제 / 햄. 소시지등에 사용. 백혈병, 뇌와 척수 중앙유발 추정.
- 유화제와 안정제 / 아이스크림에 물과 기름혼합에 사용.



## 유해화학물질 흡수 촉진.

### √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1. 간식은 집에서 만들어 준다.
2. 외식을 줄이자.
3. 제철에 나는 야채나 채소들로 식단을 꾸민다.
4. 신토불이 식품을 애용하자.

### 자. 새로운 위협, 전자파

고성능 핸드폰이나 화면이 큰 TV, 컴퓨터일수록 강한 전자파를 내보낸다. 전자파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여 무해론에서부터 암유발설까지 다양하나 몸 안의 전달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몸은 전기자극의 형태로 두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고, 사고하며,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때 몸 밖에서 강한 전기과장이 발생되면 몸 안의 전자기 흐름에도 영향을 받아 두뇌의 명령이 정확하게 몸에 전달될 수 없게 된다. 만일 몸이 지속적으로 이런 전자파에 노출되면 한 가지 일에 집중 할 수가 없고, 짜증이 나며 몸이 찌뿌둥해지는 것을 느낀다.

전자제품의 앞면보다는 뒷면의 전자파가 7배~10배정도 강하고 콘크리트 벽도 뚫고 나가므로 뒷면에 침대와 같은 것을 두지 않도록 한다. 전자파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당히 약해진다. 그러므로 TV를 시청할 때는 2미터 이상, 컴퓨터는 1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그러나 전자렌지의 경우는 전면으로 나오는 전자파가 다른 전자제품보다 훨씬 강하므로 3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하여야 하며, 작동 중에 전자렌지 앞에 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 √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1. 잘 때에는 전자제품의 전원을 모두 빼두거나 번거로우면 전원차단 스위치를 단다.
2. TV시청시에는 2미터 이상, 컴퓨터 모니터는 1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벽 뒤의 냉장고와 TV 위치를 고려하여 침대와 책상을 배치한다.
4. 숯이나 햇불선인장을 활용하자. 전자파로 인한 불쾌감은 공기 중에 가득 찬 양이온 때문인데, 숯이나 햇불선인장은 음이온을 많이 발생시켜 균형 잡힌 공기를 만들어 준다.
5.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통화하도록 한다.

#### IV. 이것만은 꼭 지킴시다.

##### 가. 무엇보다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부분에서 환기는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다. 되도록 항상 창문을 조금씩 열어 두어 실내공기가 잘 이동되도록 하고, 겨울철에도 하루에 5번 이상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하자.

##### 나. 유리, 스테인레스 등의 천연소재로 된 제품을 사용하자.

##### 다. 지나친 청결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살균, 살충, 박멸 이런말은 요사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균이 살지 않는 곳에서는 인간도 살수 없다는 것이다. 세균이 정도를 넘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살균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빨래를 너무 자주 하거나 세제를 많이 사용하고, 하수구나 변기, 욕실등에 강력세제를 자주 쓰면 짜든 때와 곰팡이는 화학적으로 쉽게 해결하여 주지만 이것이 하수구를 통하여 강으로 흘러가면 그것은 또 다른 환경호르몬이 되어 우리들의 식수로 돌아오는 것이다.

##### 리. 명상, 규칙적인 운동 등을 생활화하여

##### 유해물질을 잘 배설시키는 몸을 만들자.

명상에 집중하면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가 높아지므로 신체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도 높여준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도 신체근육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높여 건강한 몸을 만들므로 유해한 환경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 체내에 들어온 유해물질을 잘 배출한다.

##### 마.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지 않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한다.

현세대의 환경문제와 환경병은 자연생태계의 종을 모두 무시하고 오직 인간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편리함과 과소비가 그 문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는 대립적인 자세를 버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모두 끌어안고 더불어 공존하는 자세로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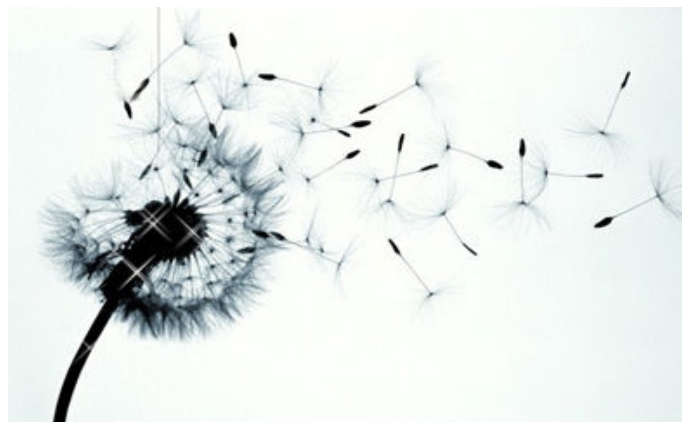


## 쉬어가는 공간

### 희망은 아름답다

창은 별이 빛날 때만 창이다  
희망은 희망을 가질 때만 희망이다  
창은 길이 보이고 바람이 불 때만 아름답다  
희망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때만 아름답다  
나그네여, 그래도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창을 열고 별을 노래하는 슬픈 사람이 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희망을 낳지 않는데  
나그네여, 그날밤 총소리에 쫓기기며 길을 잃고  
죽음의 산길 타던 나그네여  
바다가 있어야만 산은 아름답고  
별이 빛나야만 창은 아름답다  
희망은 외로움 속의 한 순례자  
창은 들의 꽃  
바람 부는 대로 피었다 사라지는 한 순례자

- 정호승



## 생활 유해 화학 물질과 그 영향

물질	소재	작용 및 증상
CO	담배 연기, 석탄·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주방 기구· 난방 기구 및 온수기, 복사기, 자동차의 매연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 식별이 어렵다.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 적혈구를 손상시켜 체내 산소 부족을 일으킨다. 그러면 두뇌와 심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혈액 중 CO양이 많아지면 기력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만성중독은 두통, 혼란감, 멀미, 구역질, 복통, 피로감, 현기증, 흉부 통증. 특히 정신 기능에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
NO <sub>2</sub>	담배 연기, 가스 난방 및 조리기, 레이저 프린터, 복사기, 발전소 배기 가스, 자동차 매연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호흡기를 손상시키며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고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을 유발할 수 있다. 뇌와 신경 계통에도 영향을 주어서 의욕 저하와 무감각 상태를 유발한다. 특히 아동, 노약자, 아토피성 질환자, 흡연자는 NO <sub>2</sub> 에 민감하여 약한 농도로도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SO <sub>2</sub>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의 연소, 공장, 발전소, 자동차의 매연, 음식물 방부제	코 안, 입 안, 기관지, 폐 등의 점막을 손상시켜 감염되기 쉽고 무감각한 상태를 만든다. 체내 비타민 B 수준을 떨어뜨려 쉬 피로감을 느끼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며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특히 아동, 노약자, 아토피성 질환자, 흡연자는 SO <sub>2</sub> 에 민감하여 약한 농도로도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나프탈렌	죤약, 카펫과 가구 커버용 세제, 수정액, 드라이클리닝 유액, 유리 세척제, 접착제	발암 물질로 추정되며, 마시거나 피부로 흡수하면 독성이 있다. 독성에 노출되면 두통, 멀미, 구토, 지나친 땀 분비와 혼란을 유발한다. 많은 양에 노출되면 치명적이다.
납	자동차 매연, 머리 염색 환원제, 페인트, 신문과 잡지 인쇄 잉크, 땀납, 파이프 연기, 노후 수도관,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서 자란 야채, 길거리 판매대에 오래 놓여져 있던 음식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체내 축적이 된다. 노쇠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납을 많이 흡수한다. 특히 태아와 7세 미만 어린이에게 매우 위험하다. 피부를 통해서도 쉽게 흡수된다. 뇌, 척수, 신경 기능을 파괴한다. 간, 심장, 혈관, 신장, 골수에 영향을 주며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뇌파의 변화, 신경 전달 계통의 변화, 어린이의 행동 변화, 빈혈, 변비, 어린이 정신 발달 장애, 의욕 저하와 정서 불안, 피로감, 고혈압, 초조, 관절통, 식욕 감퇴.



물질	소재	작용 및 증상
다이옥신	제초제인 2,4,5-T 및 2,4-D, 염소 표백제, 염소 처리 유기 물질이 연소할 때, 종이 수건, 커피 필터, 생리대, 종이 기저귀, 화장지, 종이 티 백, 우유 팩, PVC 계통 플라스틱이 연소할 때	<p>맹독성이며 지속성이 강한 발암 물질. 지방질에 잘 녹아 지방 함유량이 많은 음식물에 많이 녹아 있다가 체내로 들어가면 일단 체지방 속에 저장되었다가 차차 지방이 분해되며 작용한다.</p> <p>심한 피부 발진, 미각과 후각 상실, 우울증, 견갑을 수 없는 분노의 폭발</p> <p>유전자 변화, 간 손상, 면역과 신경 계통의 기능 저하</p>
라돈	화강암, 시멘트 콘크리트	<p>흙과 바위, 특히 화강암에서 많이 나오는 방사능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생긴다. 야외에서는 대기 중에 희석되지만 건물 안에서는 축적된다. 붕괴하여 미세한 분자 형태로 되어 주위의 먼지에 붙어 몸 안에 들어 온다.</p> <p>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 와 축적되면 방사선을 발생하면서 폐암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p>
린덴	정원용 및 실내용 살충제, 목재 가구의 방부제	<p>DDT와 같은 종류의 화학물질로 피부, 눈, 호흡기관에 자극을 주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계속 쪼이게 되면 피로감, 불면증, 두통을 일으키며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p> <p>사람에 따라 특히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재생 불능성 빈혈이나 기타 혈액 이상 증상을 보인다.</p>
벤젠	담배 연기, 세제, DIY 가구용 목재, 드라이클리닝 유액, 접착제, 살충제, 무연 휘발유, 합성수지, 고무, 페인트, 얼룩 제거제	<p>석유에서 나오는 만성 유독 물질. 조금씩이라도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현기증, 피로감, 두통, 창백함, 부주의, 방향감각 상실, 식욕 감퇴를 유발한다. 중독성이 있고 기형을 일으키는 유전 인자를 만들거나 암을 유발한다. 사람의 재생 세포에 염색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재생 불능성 빈혈과 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p>
불소	치과 치료, 일부 식수, 불소가 들어간 치약, 화학 비료로 키운 농산물, 철공소에서 나오는 연기, 홍차	<p>많은 양이 체내에 들어오면 뼈와 치아가 손상되며 암을 유발한다. 혈액 내 비타민 C도 감소시키고 기형아 출산과 유전 인자 손상을 유발하며 신체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p> <p>불소가 첨가된 물을 마시면 민감한 사람은 위장 장애가 생기고 머리가 빠지며 입 안이 험고 손톱이 부서지기 쉬우며 근육통이 생긴다.</p> <p>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효소를 억제하며 칼슘이 조절하는 신체 기능도 방해한다. 위경련, 설사, 빈혈,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세, 심하면 혼수상태도 유발한다.</p>



물질	소 재	작 용 및 증 상
석면	건축의 단열재, 일부 바닥재,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대기	오래 된 건물의 자재나 설비가 낡으면서 대기 중에 석면 분자가 떠다닌다. 폐에서 분해되지 않으며 서서히 폐암이나 중피종, 흉곽암을 유발한다
봉산염	가루 개미약, 살균제, 목재 가구의 방부제	눈이 자극되고 생식력이 감퇴하며, 5~10 그램쯤만 먹어도 사망할 수 있다.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둔다.
암모니아	담배 연기, 세제, 살균제, 드라이클리닝 유액, 섬유 유연제, 가구 및 바닥 광택제, 유리 세척제, 인쇄용 잉크, 펜 사인펜, 욕실·주방세척제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며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강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미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면 우울증, 무기력증, 식욕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크실렌	드라이클리닝 유액, 욕실 및 주방 세척제, 인쇄용 잉크, 액체 구두약	약한 독성 물질로 오래 노출되면 기침, 멀미, 구토, 혼수 상태, 환각, 두통, 귀울음, 현기증등을 유발한다. 피로감과 무력감을 일으키며 많은 양을 흡입하면 치명적
클로로폼	아파트 온수, 페인트 제거제	마취 효과가 있어 급성 중독을 일으키면 나른하고 의욕이 없어진다. 간과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
트리클로에틸렌	기름때 제거제, 일부 DIY 상품, 일부 드라이클리닝 유액, 방향제, 향, 욕실 및 주방 세척제, 살충제, 구두약	세포의 화학 작용을 방해하여, 피로와 무력감에 빠지게 되며 마취 효과도 있다. 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가열하면 독성이 강한 증기가 증발하여 폐를 손상시킨다.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면역 기능 약화, 간 손상, 정신 손상,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화불량, 멀미, 피로감, 현기증, 심장과 간 이상을 일으킨다.
폼알데히드	접착제, 합판과 MDF 판지, 방취제, 살균제, 섬유 구김 방지처리제, 가스 주방 기구, 헤어 스프레이, 헤어 젤, 방충제, 세탁용품, 인쇄 잉크, 대기오염, 물 휴지와 종이 타월, 담배 연기, 벽지, 쇼핑백을 비롯한 종이 상품	적은 양이라도 공기 중으로 발산하면 유독 가스가 된다. 우리 주변에는 이 화학 물질이 든 물건이 너무 많아 환기 상태가 좋아도 난방을 하고 있는 방안에 축적된다. 점막을 자극하며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의욕 저하, 두통, 현기증과 불면증이 생긴다. 천식을 유발하며 다른 자극에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유전 인자를 변화시키며 발암성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 노출되면 신경조직이 파괴되고 기억력이 크게 감퇴된다.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쓰여지는 모든 곳	모든 플라스틱은 알게 모르게 증기를 내뿜는다. 가열할 경우, 연질 플라스틱일 경우 더 심해진다. 발산된 증기는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헤어 스프레이에 들어 있는 폴리비닐피롤리돈은 임파선염, 혈액 세포 변질, 폐 질환을 유발한다.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쓰여지는 모든 곳	기저귀 커버, 그릇 뚜껑, 랩, 비닐 코팅 종이 상자, 자동



	합성 섬유 제품	<p>차 시트 등에 쓰이는 PVC는 발암물질로 기형아 출산,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 피부 알레르기, 호흡 곤란, 소화 불량, 코와 입 점막의 건조, 무감각, 경련 등이 나타나며 간염 및 만성 기관지염을 일으킨다.</p> <p>특히 연소시에는 염화수소, 다이옥신, 포스겐 등 맹독성 발암 물질을 발생시킨다.</p>
--	----------	---

## [부록 II] 식품첨가물표

### 1. 방부제의 종류와 독성

화학 첨가물명	용 도	독 성
솔빈산, 솔빈산 칼륨	어육제품, 단무지, 간장, 케첩, 발효유, 유산균 음료	아소산과 반응, 발암 물질에 의해 변화됨. 염색체 이동
데히드로초산 데히드로 나트륨	치즈, 버터, 마가린	간장에 변화 염색체 이상
프로피온산	치즈, 빵, 과자	눈, 피부, 점막을 자극함.
안식향산 안식향산 나트륨	간장	간질병의 경련 등 유발

### 2. 인공 합성 감미료의 종류와 독성

화학 첨가물명	용 도	독 성
L-글루타민산 L-글루타민산 나트륨	모든 식품에 사용 가정용 조미료	현기증, 손발 저림, 두통 어린이 입의 신경 세포 파괴
아스파탐	청량음료, 젤리, 추잉껌, 아이스크림	흰쥐 경구투여 - 외등에 증상 토끼 경구투여 - 골격에 이상
글리실리진산2 나트륨	된장, 간장	경직, 경련등의 급성 독성 발현
코하크산	청주, 된장, 간장	고양이 실험시 구토, 설사
산 류	한성초, 소스, 피클, 케첩, 마요네즈, 시럽	강한 급성 독성
사카린	추잉껌,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과자류	흰쥐의 자궁암, 방광암

### 3. 표백제 및 살균제의 종류와 독성

화학 첨가물명	용 도	독 성
아염소산 나트륨, 과산화수소	체리, 포도, 복숭아, 어묵 등 수산 가공품	호흡기점막, 눈자극, 유전자의 손 상, 염색체이상
사라시분유지	과실, 야채, 음료수	눈에 강한 자극, 각막레상, 습진, 염색체이상



4.산화방지제의 용도와 독성

화학 첨가물명	용도	독성
EDTA2 나트륨 EDTA 칼슘 EDTA 나트륨	마요네즈, 통조림 산화방지제	강독성, 칼슘 부족증, 혈압 강화, 위장장애 유발, 뇌 기 형아 발생
에르 솔빈산 에르 솔빈산 나트륨	생선, 생선염장, 주스 냉동식품, 주류, 치즈	명이원성, 염색체이상
디부힐히드록신틸루엔	식용유지, 버터	콜레스테롤 상승, 호르몬제에서 발암유발 유전자 손상,염색체이동

5.산미료의 종류와 독성

화학 첨가물명	용도	독성
구연산	청량음료, 과즙, 잼, 젤리, 얼음과자, 사탕 소스, 치즈, 아이스크림	비교적 독성이 약함
주석산, 주석산 나트륨	구연산과 동일	토끼,개에게 강한독성 염색체 이상
젖산	청주, 합성주, 청량음료 빵, 과자, 젤리, 소스	미숙아 중독사, 급성 출혈, 적혈 구 감소
아디핀산	치즈, 사탕, 젤리, 프림	자극성이 있음
푸마르산, 푸마르산 나트륨	합성 청주, 절임, 청량음료, 농 축주스, 젤리 과자, 과일 통조림	토끼 감작성 팽창, 중혈, 정소에 영향, 변이원성

6)착색제, 발색제, 팽창제

착색제-타르색소	발색제-아질산나트륨, 아토산나트륨	팽창제
소비육구충족을 위해 색을 내 게 하는 화학물질	색을 선명하게 하는데 사용	빵이나 과자를 부풀게 하는 화학 물질
치즈,버터,아이스크림,과자,캔 지,소시지,통조림고기,푸딩	햄, 소시지, 어육제품	빵, 케이크, 비스킷, 초콜릿
간, 혈액, 콩팥장애, 발암성	헤모글로빈, 빈혈증, 호흡기능 약화,급성구토,발한,의식불면, 간장암유발	카드뮴, 납등의 중금속 함량이 높다.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회원을 모집합니다.**

###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줄임말 다지사)'은 1999년 12월 엄마들의 공부모임으로 시작한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이 보다 책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다지사는 우리와 다음 세대가 맑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유해 광고 모니터 활동, 친환경 먹거리 캠프, 다음지킴이 환경학교 개설, 건강한 학교 만들기 운동, 유해화학물질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아토피를 잡아라'라는 책을 출간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지사는 아이들의 먹거리, 유해물질,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임을 구성해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공부도 하고,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운영하니, 아이와 세상을 사랑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바랍니다.

-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3층 환경정의)
- 연락처: TEL.02)743-4747 FAX.02)743-4748
- 홈페이지: [www.eco.co.kr](http://www.eco.co.kr)